

2008 새해설계 ⑦

포천시생활개선회 회장 조금자

농촌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

우리가락분과위원회 공연 소품 및 의상비 지원 기대

포천시생활개선회는 농촌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농촌지역의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농촌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포천시생활개선회 조금자(사진) 회장은 2002년도에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6년째 포천시생활개선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천시생활개선회 분과는 ▶우리농업연구회(테마가 있는 쌀요리) ▶생활원예반 ▶규방문화연구회(천연염색반) ▶규방문화연구회(규방공예반) ▶생활기술과제연구회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반인과정으로 ▶예쁘고 손쉬운 우리떡 만들기 ▶건강도 우미양상반(간병인자격증준비) ▶생활건강강진을 위한 자연치유요법 ▶나만의 와인만들기(와인스쿨) ▶천연염색반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부부행복세미나 ▶우리가락 맥이티 교육(우리소리반, 우리춤반, 우리악기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부담이 있는 과목과 자부담이 없는 과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장소는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으로 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외국

인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도우미반에서 자격증을 취득해 모현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우리가락 분과위원회는 매월 음식을 준비하여 어르신들을 찾아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40~50대 여성 600여명의 구성된 포천시생활개선회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연말에 실적발표회를 통해 그동안 배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도 한다.

조 회장은 꾸준히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다며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학습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참수면의



경우 밭이 많아 밭작물을 이용하고 가산의 경우는 포도단지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번기에는 농사일을 돕는데 앞장서기도 한다.

조 회장은 포천시에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가락분과위원회가 공연에 나설 때 필요한 의상 및 소품구입비를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행복 나무심기 희망과 행복 기대

한화리조트·산정호수 노아의 집 장애아동과 함께

한화리조트·산정호수(본부장 조용하)는 4월8일 노아의 집 장애아동들과 함께 '행복 나무심기'를 했다.

'행복 나무심기'는 신축한 노아의 집 건물 외단 가장자리에 사시시절 푸른 잎으로 아동을 반겨줄 수 있도록 희망목 150그루를 심었다.

한화봉사자와 교사가 함께 구덩이를 파면 아동을 고사리 손으로 희망목에 흙을 덮고 물을 주며, 잘 자라라고 발로 밟아 주면서 행복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길 기대했다.

행복 나무심기를 마치고, 아동들

에게 울타리가 되어 줄 희망목을 보면서 가슴속에서 희망과 행복을 가득 안고 돌아왔다.

5월에는 '베이지 사자관'으로 한화봉사자와 아동들이 추억의 앨범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한화와 노아의 집이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로 뜻 깊고 의미 있는 가족사진도 찍고 아동들의 성장 사진을 찍을 계획이다.

한화리조트/산정호수 봉사단 조미희 담당은 "더불어 살아가는 행



한화리조트/산정호수는 4월8일 노아의 집 장애아동들과 함께 '행복 나무심기'를 했다.

복한 세상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번역사업·조직강화·저변확대 노력

이해조문학회 신입 회장 박정근 교수 선출

동농 이해조의 작품을 연구하고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창립한 이해조문학회 2008년 정기총회가 4월8일 오후6시 대전대학교 인문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는 2007년 사업결산과 2008년 사업계획에 대한 안건 처리와 임원개선의 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했다.

2007년 주요사업은 정기총회와 임원개선, 이해조선생 80주년 추도식, 이해조문학회 개회 및 시상 등의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임원개선에 들어가 회장에 박정근 대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선출했고 사무국장

에 김진진 회원을 임명했다.

한편, 이날 정관개정을 통해 부회장 1인을 임원으로 추가하기로 의결했으며 안익수 전 사무국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박정근 회장은 "동농 이해조를 둘러싼 친친회는 물론이고 기념사업회 등과 연대하고 팬드를 조성하여 주요사업을 프로젝트화 하 여 널리 알리고 번역사업 등 동농 이해조 선생의 작품을 현대사회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해조문학회를 개원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2006년 이해조문학 1호가 발행된



동농 이해조의 작품을 연구하고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창립한 이해조문학회 2008년 정기총회가 4월8일 오후6시 대전대학교 인문학관에서 개최됐다.

이후 2007년 2호를 발행했으며 2호의 주요내용은 김성철 회장의 발간사, 박정근 회장의 추모사, 안익수 회원의 동농 이해조 선생 기념사업회 창립에 부치는 시, 이해조문학 제 목후담 공모작품 당선작품(고미희, 백종만, 윤경자, 이지은, 문재

민, 이정민, 박승현, 육혜원)과 공명수, 김성철, 박정근, 홍용표 회원의 작품과 김영복, 김창호, 안익수 회원의 예술논단, 김진진, 손영배, 정미호 회원의 화원시, 이해조 작품 대표작인 자유종이 실향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특별기고

한국천주교회의 개조(開祖) 이벽(李磔)이야기(본명 德祚)



김창중 본지專欄위원

이벽은 1754년(영조30년) 경기도 포천군 화현면 화현리에서 경주이씨 부안(簿萬)과 청주한씨 사이에서 6남매중 둘째로 태어났다. 가문은 고려의 유명한 문신 이벽(이재현)의 후손으로 본래 문관 집안이었으나 후대에 무관으로 전향해 부친을 비롯하여 형제가 무과로 벼슬하고 있었다.

이벽 또한 키가 8척(2m40cm)의 거구로 한 손으로 무쇠 60kg을 드는 장수였다. 이벽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일곱 살 때 4서 3경을 읽어 외워 포천의 선비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일찍이 성호 이익이 이벽을 가리켜 장차 큰그릇이 될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재주가 뛰어났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정약용은 강진에 유배된 후 이미 타계한 이벽을 회상하면서 내에게는 비교가 안될 만큼 출중한 덕행과 해박한 지식이 있던 이벽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누구에게 물어 보라? 하여 이벽 님의 뛰어난 학문과 행실을 그리워했다.

이벽이 천주교를 접하게 된 것

은 이벽님의 6대조 이경상 때문이었다. 이경상은 병자호란때 심양에 인질로 잡혀간 소현세자를 모셨는데 소현세자가 북경에서 귀국할 때 선교사 아담살에게서 받은 천주교 서적중 일부가 이벽가문에 전해왔다.

이벽님은 이런 서적들을 통해 스스로 천주교를 자연히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성호 이익의 학문을 계승한 청년 학자들이 1779년(정조3년) 천진암 주에서에서 사부적인 권철신을 주재자로 모시고 장학회를 열었다.

모인 학자들은 권일신, 이벽, 정약전, 정약용, 이승훈, 김원성, 권성학, 이종억 등 남긴기의 자제들이었다.

이 천진암, 주에서 장학회가 '유교적 모임이냐? 천주교 모임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천주교가 유교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청년학자들 모임이었다. 이 장학회에 이벽님이 참여하면서 서양지식과 천주교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점차 천주교라는 종교로 집착하게 되었다.

1783년11월 이승훈은 이벽님의 주선으로 동지사로 가는 아버지를 수행 북경으로 간다. 이듬해 1784년 예수회 그타용 신부로부터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는다.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귀국하자 이

승훈(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 이벽은 이가환, 권철신, 권일신, 최창현, 최인길, 김범우 등과 지식인 양반가 부녀자 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했다.

이벽은 아버지 이부만의 문중회의 총무 모욕과 문책을 당한데 대한 고민과 심지어는 아버지의 자살기도 등의 시련을 맞는다.

아버지에 의해 후원 별당에 감금당하고 부친은 "이벽이 천주교를 믿다가 천벌을 받아 영벌에 걸려 죽었다"고 말했다. 일이 이에 이르자 방안에 좌절하며 식을 전폐하고 철야기도와 목상에 전념, 결국에는 단식 14일만에 1875년 음력 6월14일 탈진한 채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31세였다. 이벽 님은 그렇게 승천했다. 18세기 조선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들어오지 않은 조선 땅에 천주교가 자발적으로 생겨나게 한 세계 종교 역사상 유일한 경우로 기록된다. 광암 이벽은 스스로 천주교를 믿었고 이교 서양학문을 지식인들에게 소개 시키는 한 최초의 선각자였고 또 포천 출신의 위대한 지식인이었고 진보적인 사고로 당시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아래 모든 사회가 통제된 사회로부터 신분명의 지식의 문을 처음 열어젖힌 위인이었던 것이다.(이벽 님에 대한 전 학문자의 연일 쇄도하여 본란을 통해 문에 답을 드립니다.)

주부이야기

칼국수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얼마 전 일이다. 웨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중이시라 많이 수척하고 아취어진 모습으로 친정아버지께서 찾아 오셨다.

수술도 못하고 항암치료조차 힘들어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는데 한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주 찾아볼지 못해 늘 마음속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였다.

병원에 다니시면서 오하려 더 많이 상하신 당신을 보며, "드시고 싶으신 것 잘 드시고 운동을 자주 하시며 기분 좋은 일반 생각하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가끔 갈비, 삼계탕 등 좋아하시는 음식을 챙겨 드렸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걸 보니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보다도 생각했다.

"칼국수가 먹고 싶어..." 하시며 친구 세 분이 투병중인 당신을 위해 외식도 시켜주시고 바람을 쐬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도 더 들어 하셨다. 그때 눈치를 찌어 야 했다.

당신께서 드시고 싶으신 것보다는 친구들에게 보답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그러나 눈치 없는 딸은 당신이 드시고 싶으신 줄만 알고 친정식구와 우리 가족이 함께 외식하자고 약속을 했다.

약속 당일 아침부터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다.

"오늘 점심에 어디로 가이하냐?"

"그냥 제 사무실로 오셔서 우리 식구들과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다.

"그 양반들이 우리 집으로 모

여서 가면 되지 왜 너희 사무실로 번거롭게 가느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분들이 누구예요?"

어머니는 아버지 친구 세 분 내외를 내가 함께 초청한 줄 알고 그렇게 초대할 한 것이었다.

그제서야 상황과약을 한 나는 좀 당황스러웠다.

"아니 우리 식구하고 같이 외식하자고 했더니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일이면 진작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차도 교통사고로 수리하고 있어서 한 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하며 나는 역정을 내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분들이 차가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식사비가 부담되면 나도 좀 가지고 가면 되지." 하시길래 "그분들 여자분이라 봐야 칼국수 한 그릇에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걸 엄마가 내세 불러 하셨다. 그때 눈치를 찌어 야 했다."

당장 약속소에서 좀 기다리니 아버지 친구 두 분과 아주머니가 도착하셨다. 그 분들은 딸인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었다.

겨우 칼국수 한 그릇인데... 이미 식사를 하신 탓에 나오지 않으신 분도 있다고 하셔서 시내에서 더 맛있는 칼국수를 이번엔 내가 직접 대접드리기로 하고 연락처를 받아왔다.

이렇게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나니 너무 기뻐하시는 부모님 모습을 보며 아까 내가 공연히 역정을 낸 것이 죄송하기 그지 없었다.

나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

아버지는 아들 셋 낳고 바라던 딸을 낳으셨다고 나를 항상 예뻐해 주셨다.

당시 미군부대에 근무하셨던 당신은 친구를 만나거나 불 보러 다닐 때도 나를 자전기 뒤에 태우고 다니시며 우리 딸 예쁘다고 내 자랑을 하셨다.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딸기아이스크림, 비스킷 등을 입에 달고 살았으며 구두에, 드레스까지 입고 공주처럼 자랐다.

그런 아버지께 이제 와 칼국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무어 그리 대단하다고 저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다. 웨장암 선고를 받으시고 일 년 만에 그렇게 가셨다. 그 힘든 함참치료를 위해 통원치료와 입원, 퇴원을 반복하시던 중 환자실에서 두 달을 지내시고 지난 구정에 돌아가셨다.

그동안 입원치료를 하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 아버지와 친구분들에게 지겨웠던 한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했으니 내게 속죄를 하나 남겨주시고 가신 것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식노릇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친구분들을 통해 지식노릇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죠. 며칠 내로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며 아버지를 생각할 것이다. 이제 아버지 영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식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순리를 따르면 매사가 여유로워지나 욕심을 따르면 위험이 뒤따른다'

다. 이러한 현상(現象)은 삶의 현장(現場)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욕심을 버리면 보이는 진실(眞實)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순리(順理)와 종욕(從欲)을 말하는 것이다.

'순천자(順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한다'는 말도 있다. 순천이란 순리를 따르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理致)를 따르는 것이다. 순풍(順風)에 배를 띄우는 것이다. 순풍에 배를 띄워야 힘들이지 않고 배를 볼 수 있다.

반대로 역풍(逆風)에 배를 띄우면 풍랑(颶浪)만 만나게 된다. 순풍에 배를 띄운다는 것은 순리를 따르는 것이고 역풍에 배를 띄운다는 것은 종욕을 따르는 것이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탐욕(貪慾)을 버려야 한다. 욕심이 앞을 가리면 있는 현실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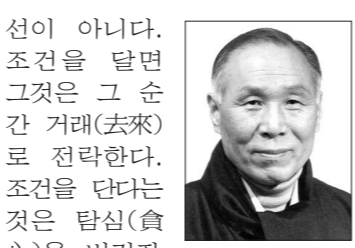
욕심이 앞을 가리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본다. 그 욕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욕심이란 충족(充足)을 뛰어넘는 것이다. 만족(滿足)을 뛰어넘는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고 탐하는 것이다. 만족(必要)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 이상을 취하려 한다. 그 이상을 취하

면 집이 되고 업(業)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認識)하지 못한다. 욕심을 버리면 보이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필요 이상 취하면 업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자족(自足)할 줄 알아야 한다. 배가 부르데도 사냥을 계속해서 안 된다.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출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무위도식(無爲徒食)이라는 말이 아니다. 일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라는 말이 아니다. 무위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것이다.

도식이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다. 남이 탐 흘려 거둔 곡식을 탐하는 것이다. 도식은 도선(盜善)과 같은 말이다. 도선을 하지 말고 적선(積善)을 해야 한다. 선을 쌓아야 한다. 착한 일을 해야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行)으로 해야 한다. 행으로 선(善)을 쌓아야 한다. 이것이 적선이다. 말로만 하는 것은 위선(僞善)이지 적선(積善)이 아니다. 도선은 물론 위선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탐 흘려 이해야 한다. 그리고 넘치는 것을 조건(條件) 없이 배 풀어야 한다. 조건을 달면 안 된다. 조건을 달면 그것은 이미 적



이규임 인문학박사학위 명예회장

선이 아니다. 조건을 달면 그것은 그 순간 거래(去來)로 전락한다. 조건을 달라는 것은 탐심(貪心)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 종욕(從欲)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건을 달지 않고 배풀면 그대로 돌아온다. 선업(善業)이 되어 돌아온다. 질량불변(質量不變)이라 하지 않았는가? 질량불변의 법칙은 그래서 소중하다.

종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행동(行動)을 하거나 판단(判斷)을 할 때마다 그 기준(基準)이 진실인가 아니면 사색(私欲)과 같은 말인가. 도선을 하면 마음이 평안하여 여유로운 상태가 되어 진실이 보이나 욕망에 따라 행동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아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순리(順理)를 따르고 종욕(從欲)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봄비



박성영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봄 만물의 신비가 느껴져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묘한 매력의 계절이다. 하늘이 검푸르고 바람이 싸늘하게 피부 속에 파고 든다. 왜리까 싸늘하고 춥지 비가 오려나? 오후가 되자 점점 바람은 더 차갑게만 느껴진다.

빗방울이 한방울 한방울 떨어진다. 봄비가 촉촉히 내린다. 사물은 모든 생물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계절이다.

낚시터에는 낚시꾼들이 얼굴이 웃음이 가득 신비한 모습처럼 기쁨의 얼굴빛이 보이고 뱀이 캐는 연어네물떼 모습은 자네에 뱀이 먹거리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마냥 기쁘기만 한 웃음 가득

한 모습이다.

젖은 물린 아낙네의 얼굴은 흐릿함과 평온함이 어린아이의 바라보는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천사의 모습 빗줄기가 계속 땅속에 스며드는 것이 아기가 어머니 젖을 빨듯이 흠뻑 흠뻑하게 빨아들인다.

지상에서는 새싹들이 고개를 들고 사뿐히 인사를 한다. 땅과 하늘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푸르게 생명의 시작을 울리는 뜻깊은 계절이다. 매미는 웅얼웅얼 오아시스를 만나듯 한줄기 봄비는 얼얼불은 마을을 녹이듯 아스팔트 거리는 자동차의 불빛에 붉게 불타고 밤의 정경이 너무도

아름답다.

우글리 포도 마을 농민들은 포도나무 가꾸기 매우 바쁘게 밭갈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가지치기와 꺾기 벗기기 가지 매주기 비기림 썬우기 거름주기 원두막 제작 등...

땅에 물주고 거름주고 새싹들이 트는 동시에 시작되는 농경의 아침 농부의 피마미 지금부터 시작되어 가을에 풍년을 기대하면서 사랑은 듬뿍 쏟고 있는 포도 마을의 주민들의 모습들이 아름답다.